

80여년 설법기도처 새로 탈바꿈

울산 해남사 4월 7일 설법보전 중창불사 낙성식

1935년故구하 천보 스님이 불교의 자비 실천을 행하기 위해 건립한 울산 해남사(주지 만초)가 '설법보전 중창불사 낙성식'을 4월 7일 봉행했다.

해남사의 설법보전은 80여년 동안 대중에게 법을 설하고 사부대중의 번뇌와 아픔을 씻어주는 안락한 법당이였다. 허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설법보전의 시설들이 눈에 띄게 낡아빠졌고, 이를 마음 아파하던 신도들과 주지 만초 스님이 심시일 반으로 기도와 보시금을 모아 숙원하던 중창불사를 완공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해남사 주지 만초 스님 등 40여명의 경남지역 대덕스님들과 4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해남사 법당의 중·개축을 처음으로 논의·확정한 것은 지난 2012년 신도 운영위원회에서였으며, 중창 불사를 위한 백일기도를 그 해에 시작하여 올해 5차 백일기도를 맞이 할 만큼 신심을 쏟았다. 백 일기도의 회향 때에는 불자들과 주지 만초 스님이 삼천배를 올리며 중창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발원했다.

2013년도에는 그동안 해남사의 주요 법당으로 불자들을 지켜주던 설법보전과 고별 법회가 진행됐고 설법보전이 해체된 자리에 새로운

불사 착공식을 가지며 중창불사의 첫걸음을 뒀다. 신도들과 주지 만초 스님의 추진력으로 중창 불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기존에 있었던 설법보전과 달리 설법보전의 지하에는 보광법당과 공양실인 미소당 등이 만들어졌으며 모든 공사는 올해 4월초에 마무리됐다. 불사규모는 총 280평이며, 불사금은 전통 사찰 보조비 1억 6천을 포함해 만초 스님이 부담한 뒤 5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동지 등 크

신도운영위서 증개축 확정 후 5차례 백일기도하며 신심 쏟아 규모 총 280평, 공사기간 1년

고 작은 사중 행사를 통해 꾸준히 모인 법회 동참금 총 9억의 기금, 신도들이 보시한 7억여원의 불사 비용까지 총 24억의 예산이 건축예산에 쓰였다.

주지 만초 스님은 "울산 중심 사찰 해남사는 행복도량이다. 80여년의 세월동안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고향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고통을 견뎌내는 장소였고, 또 다른 이에게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는 행복이



울산 해남사가 '설법보전 중창불사 낙성식'을 4월 7일 봉행했다.

있는 곳이었다. 1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설법보전'은 예전보다 더 큰 기도와 행복을 담아내는 수행의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다. 아직 모든 불사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부처님을 다시 모시는 일과 행화를 조성하고, 단청을 작업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불사에 여러분의 신심과 부처님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서두르지 않는다. 여러분의 신심이 차곡차곡 쌓이는 날, 모든 불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낙성식에 참석한 김남희(43)씨는 "집 근처에 있는 사찰을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유명인사외에도 해남사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패역자에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각 수산자에게 어울리는 글귀들을 함께 적어 받은 이들을 감동케 했다. 설법보전 1년의 공사기간 동안 묵묵하게 소임을 참아준 이웃부터 해남사를 매일 쓸고 닦아주는 재가자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해남사를 사랑하고 아껴준 재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이들을 위한 진정된 감사의 뜻인 것이다.

낙성식에 참석한 김남희(43)씨는 "집 근처에 있는 사찰을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유명인사외에도 해남사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관조 스님 유작필름 범어사에 보관

관조스님문도회-범어사 4월 10일 협약식

관조스님문도회(대표 승원 스님)가 故관조스님의 유작필름 관리 및 사용을 금주총림 범어사(주지 수불)에 일임했다.

'관조스님 유작필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협약식'이 4월 10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관조스님문도회 대표 승원 스님, 성보박물관 관장 경선 스님 및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관조 스님의 유언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19만 7천 846점에 이르는 필름들이 수장고에 보관되며, 향후 후손들을 위해 필름들을 스캔하여 사를 매일 쓸고 닦아주는 재가자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해남사를 사랑하고 아껴준 재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이들을 위한 진정된 감사의 뜻인 것이다.

낙성식에 참석한 김남희(43)씨는 "집 근처에 있는 사찰을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유명인사외에도 해남사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관조스님문도회-범어사 유작필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협약식. 사진은 왼쪽부터 범어사 성보박물관 관장 경선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관조스님문도회 대표 승원 스님

결정하게 된다.

관조스님문도회 대표 승원 스님, 범어사 성보박물관 관장 경선 스님 등으로 특별운영회가 구성되며 사진들은 범어사, 통도사, 경주 남산, 벽 데이터 등 다양한 피사체들을 담고 있다.

한편, 2006년 관조 스님의 임직해 유작필름의 전시, 출판, 임대 등 필름의 사용 및 보관에 대한 사항들

으며, 그 후 2007년부터 대분류 및 스캔 작업을 진행해 지난해 처음으로 필름 원본 및 스캔 파일 100개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됐다. 협약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관조 스님 석불 사진전'은 9월 24일~30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2층에서 열린다.

김나영 객원기자

2014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발대식

4월 5일 범어사 설법전서

2014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수불)신입생활영회 및 발대식이 4월 5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불자로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고 나아가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의식 있는 청소년으로 거듭나기를 발원했다. 또한, 새로운 지도교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청소년 불자들을 이끌어주는 의식과 역할을 당부했다.



2014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신입생활영회 및 발대식서 학생들이 선서하고 있다.

또한, 범어사 표교국장 지장 스님(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무)은 "여러분은 부처님의 법과 지혜를 수학하기 위해 파라미타에 동참하게 됐다. 부처님의 지식과 지혜는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력을 지녔다. 파라미타와 함께 부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대식이 끝난 이후에는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만의 축제 '슈퍼파라미타를 찾아서'가 범어사 성보박물관 앞 야외상설무대 앞에서 진행됐다. '슈퍼파라미타를 찾아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단합행사로, 파라미타 회원들이 댄스·노래 등 다양한 장르들을 선보였다.

김나영 객원기자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동명대 특강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사진)가 4월 9일 '전통문화와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동명대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홍 교수는 "전통은 역사성을 보면 시간성을 지녀야 하고 공간적으로 보면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민속이라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시간성과 통일성이 같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통문화를 하나의 문화소산으로만 생각했지 문화활동으로 여기지 않았다. 문화활동을 불교에서는 '화'라 한다. 의문을 가득 지니는 화두로 삶의 방향인 인문학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사진)가 4월 9일 '전통문화와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동명대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수행자로서의 자세 향시 유념해야"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대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의 보살계 회향대법회가 4월 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통도사 설법전을 가득 메우고도 발 디딜 틈이 없어 아담법석들이 펼쳐진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대법회'에서는 보살계를 설하는 삼사칠중대학사 스님들의 등단과 함께 장학금 수여식이 앞서 진행됐다. 통도사 재적 스님 중 통도사의 창건 정신을 이어 맹렬히 수행 정진한 스님들에게 수여된 이번 장학금은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9명, 학사 20명 등 총 45명의 스님들에게 총 3천 9백 여만원의 장학금

이 지급됐다.

이어서, 보살계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불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총 30회 참여로 가장 많은 보살계를 받은 영예의 주인공인 이연순(선목화)씨를 비롯해 25회 3명 등 총 58명이 각각 성만배 및 금빛가사, 기념메달을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으로부터 받으며 불자로서의 영광을 안았다.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지만 계를 잘 지키고 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다. 보고, 듣고 느끼면서 수계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

이 있을까 싶다. 그러나 부지런히 계를 지켜 울지 않은 것들을 하지 말고, 바르지 않은 것들은 그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정신 및 물질적으로 타인에게 베풀며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향시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순서로 연비의 식과 탑돌이가 진행됐으며 계를 받은 불자들은 각자의 평안과 소원을 발원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통도사 수계산림 회향대법회

한국불교대 동자승 삭발식 및 수계법회

4월 9일 동자승 10명 탄생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주지 밀해)가 4월 9일 부처님오신날 앞둔 4월 9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참 좋은 유지원생' 10명의 동자예비승을 탄생시켰다. 이들 동자승들은 부처님오신날까지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홍보대사 스님으로 활동한다. 관내 육보법전에서 삭발식을 봉행한 주지 밀해 스님은 동자

승들에게 "생명을 해치지 말며,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바르고 고운 말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선생님과 부모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느냐"고 물었고 동자승들은 "예"라고 대답했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동자승 삭발식 및 수계법회에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대 동자승 삭발식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명당발복의 신비

★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 天造明堂을 구求하라!

★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 地造明堂을 구求하라!

★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 人造明堂을 구求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제(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크기)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이며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祕)한 비밀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적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격국(格局)과 용신(用神)으로 운(運)보는 법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 트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회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가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 송철호 지음 / 신국판 / 양정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정본 / 정가 50,000원

대구의 화합! 세계의 축제!

중요 무형문화재 제22호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달구벌 관등놀이 · 연등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축제! 지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소통하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축제와 연등회가 대구 곳곳에서 열립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이제 대구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달구벌 관등놀이와 연등회에 오셔서 다양한 문화체험과 볼거리를 따사로운 불기운과 함께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관등놀이 4. 17(목) ~ 4. 20(일) 오전10시 ~ 오후 9시 중동고 일대 신천둔치

연등회 4. 26(토) 오후 7시 두류공원 야구장 일대

문의 053)623-6388

WEB www.gwandeung.or.kr facebook www.facebook.com/gwandeung

문화체육관광부 Colorful DAEGU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불교총연합회